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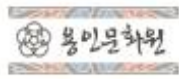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2010 용인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대학일반부	국 적	내국인
공모분야	홍보콘텐츠	세부분야	뮤지컬 시나리오

출품자 프로필			
성 명	박소의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성 명	정소민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토리텔링 창작물 개요	
제 목	뮤지컬 처인성 전투
주 제	원나라의 고려침공을 막아낸 자주적 용인 시민의 모습 재조명
주요내용	<p>본 공연은 고려를 침공한 원의 군대를 물리쳤던 처인성 전투를 단순히 승장인 김윤후의 공이 아닌 처인부곡민들의 자주적인 항전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픽션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시나리오를 통해 단순히 재미있는 공연이 아닌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p> <p>(공연내용 요약)</p> <p>원나라 태종 오고타이는 고려의 강화천도에 따라 살리타이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고려침략을 지시한다. 고려는 이에 결사적인 항전을 하게되고 고려 정복에 어려움을 느낀 살리타이는 용인으로 회군하여 고려의 임시수도인 강화도를 포위하고자 하는데... 한편,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처인부곡민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혼란을 겪지만 김윤후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원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조정으로부터 큰상을 받아 신분상승을 통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된다.</p>



## 2010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 <뮤지컬 처인성전투> 기획서

- 자주적인 용인시민들의 이야기

1. 기획의도
2. 파급효과
3. 장르선정이유
4. 뮤지컬 처인성 전투 - 보다 Fact를 토대로 한 우리의 공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06학번 박소의  
이란어과 06학번 정소민



#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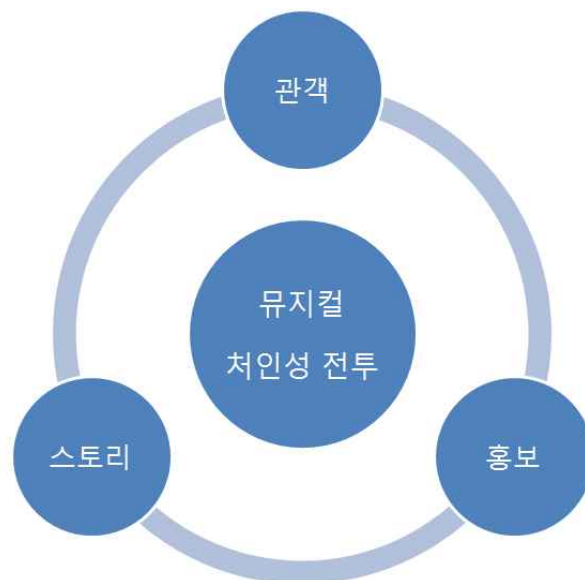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06학번 박소희, 이란어과 06학번 정소민

## 뮤지컬 처인성 전투 (가작)

### 기획의도

- ▶ 처인성 문화제의 주요 스토리인 처인성 전투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 소개함으로써 이 뮤지컬은 처인성 문화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격의 메인이벤트의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 ▶ 한편,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처인성 문화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연뿐만이 아니라 잊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한다.
- ▶ 한국과 몽골의 교류의 장인 이 처인성 문화제의 대표 공연이 될 뮤지컬 처인성 전투는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무대의상 및 느낌 등에 서로의 문화를 잘 반영하여 문화교류 또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설픈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 ▶ 기존의 영웅에만 치우쳐진 스토리가 아닌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김윤후라는 승장만의 능력이 아닌 고려시대 당시 부곡민이라 천대 받았던 처인부곡의 주민들이라는 것을 보다 부각시킴으로서, 처인부곡민의 자주적인 기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 공연 중간중간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획하여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 파급효과





- ▶ 관객: 관객을 시각적, 감정적으로 매혹시킴으로써 처인성 문화제의 재방문률을 높인다. 또한 뮤지컬 처인성을 처인성 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랜드마크 격의 공연으로 발전시켜 처인성 문화제를 방문해야 하는 목적이 되도록 하며 매년 공연을 확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스토리: 픽션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역사를 공연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역사공부를 위한 단체관람도 올 수 있는 매력으로서 작용하게 한다. 또한 처인부곡민의 승리에 따른 해피엔딩으로 감동을 전하고 자주적인 용인 시민의 기상을 잘 표현함으로써 용인 지역 내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홍보: 등장인물인 인성, 수지, 인구, 홍이와 같이 용인의 지역명(처‘인성’, 수지‘구’, ‘처’인구, 기‘홍’)을 이용한 작명 혹은 처인부곡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함으로써 공연 뿐만이 아니라 용인 그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장르선정이유

- ▶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서사적인 전개가 가능한 공연 중에, 비교적 다른 공연에 비해 다가서기 쉽다는 인식이 있는 뮤지컬로 처인성 축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과 더불어 관객의 직접 참여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이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며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효과 연출이 또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공연 형식을 빌림.

## 주요 타겟층

- ▶ 주말 나들이를 하는 가족단위의 관광객
- ▶ 재미를 통해 역사공부를 위해 처인성 문화제를 찾는 학생 단체 규모의 관광객
- ▶ 처인성 문화제를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는 몽골단체 및 외국인 관광객

## 뮤지컬 처인성 전투 - 보다 Fact를 토대로 한 우리의 공연

처인성 전투는 고려군이 원나라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이긴 전투로써 큰 의의가 있는 전투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역사적인 사실로써는 매우 적은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당시 생활을 유추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제가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 중 크게 두 가지로는 ‘적장 살리타이를 누가 죽였는가?’에 대한 여부 문제와 그 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저항 세력이 토성인 처인성에서 어떻게 항전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부터 처인성 전투를 여러 가지 참고문헌으로부터 발췌한 사실에 따라 처인성 전투의 역사



적인 배경 및 경과 그리고 결과 등을 재조명 해보도록 하겠다.

## ▶ 처인성 전투의 역사적인 배경

처인성 전투를 다루기 앞서서 원나라의 재침이 어째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인성 전투가 있기 전, 원나라는 이미 고려 침공을 하였으며 고려는 원나라의 기병대로부터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원나라도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진 고려의 출병이 낯설었기에 고려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 지연이 되자 먼저 화의를 주선하였으며 고려는 여기에 따라 인질 및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원나라와의 전쟁이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였다.

### ① 원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고려의 강화천도

원은 철수 이후 고려에게 끊임없이 힘든 요구조건으로 침략할 구실을 만들었다. 원은 1232년 2월 17일, 24인의 몽고군 사절을 통해 동진을 정벌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군사를 요구하여 고려측의 30척의 군선 및 3,000의 군사를 지원을 받는가하면, 수달피 1,000령을 요구, 만주 봉황성 일대를 개간하기 위한 인력 차출, 원나라 내부 고위관료들을 위한 노예 차출 등 여러 가지 힘든 요구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원나라의 횡포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판단하여 원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를 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과거 1차 원 침공 때, 원나라 군사들이 수전에는 약한 것을 참작한 것으로 원나라에게 고려가 불사의 항쟁을 벌일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되었다.

고려는 강화도 천도만 강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원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원나라의 병사를 제거하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각 행정구역에 남아있는 다루가치<sup>1)</sup>들을 축출함으로써 원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였으며 원의 재침을 우려하여 개경에 수비 병력을 8,000여 명을 더 증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원의 고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원의 태종 오고타이가 고려를 재침공할 구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 ② 원의 재침

원은 앞에서 언급한 고려의 적대적인 반응에 크게 당황하였으며, 고려 재침공을 계획하여 다시 한번 고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원 태종 오고타이는 1차 고려 침략에 임명하였던 살리타이를 재신임하여 총사령관으로 임명, 1232년 8월에 1만 여기의 기병을 동원하여 고려 침략을 단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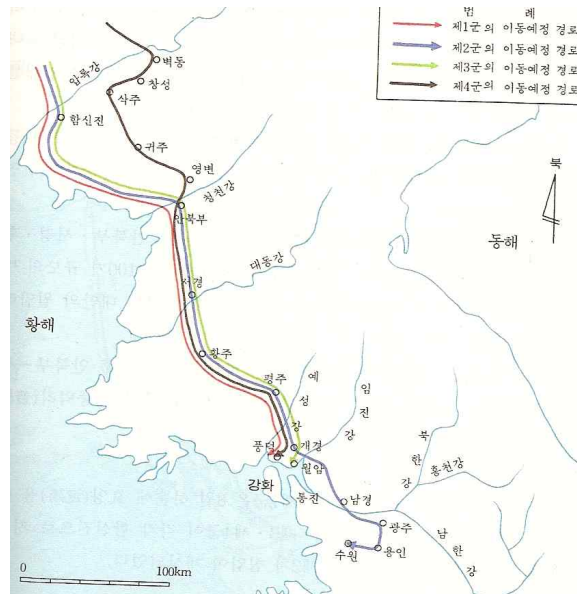
비교적 1차 침략보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 침략을 단행한 것은 과거에 노출되었던 전략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 정예로 기동력을 강화하여 단기간에 고려를 원에 복속시키겠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

---

1) 원나라에서 파견한 행정 감독관을 지칭함.

이러한 태종의 방침에 따라 살리타이는 고려 침략의 효율성을 위해 1만여기의 기병을 1군부터 4군으로 나누어서 침략을 단행하였는데 당시 원의 고려침략 시 병력 이동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살리타이는 1군부터 4군까지 각각 자신의 부장인 테케, 푸타우, 디쥬, 탕꾸에게 일임하여 다음과 같은 경로로 고려를 침공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원나라 군의 이동경로는 그림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강화도를 고립시킴으로써 최소한의 힘으로 고려를 다시 수중으로 넣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원 군사의 남진 계획, 對蒙抗爭史 103페이지)

살리타이는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남진을 하였으며, 고려의 병력이 개경 및 다른 주요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무혈점령을 통해 안북성으로 손쉽게 진출하였다고 한다.

살리타이는 10월까지 군사를 안북성에 주둔시키고 고려와 다시 한번 화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고려의 항전의지로 목살되자 1,000여기의 기병대를 대구 지방까지 남진을 시켜 약탈을 하고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고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고려 압박을 시작하였다.

살리타이는 1~3군은 지속적으로 강화도를 압박하게 하고 주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한편 자신이 4군을 이끌고 11월 중순에 광주성을 함락하여 고려의 중부 및 동남부를 초토화 시키고자 한다.

### ③ 원의 광주성 공격 실패 및 용인으로의 회군

살리타이의 주력인 4군이 광주성을 함락시켜 고려군의 예기를 꺾겠다는 작전에도 불고하고 원의 군사들은 광주성의 거센 항쟁에 결국은 패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살리타이는 자구책으로써 광주성을 포기하고 용인을 함락하여 용인-수원-군포-부평-김포라는 이동경로를 따라 강화도를 다른 경로로부터 압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처인성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 ▶ 처인성 전투

살리타이의 4군이 용인으로 회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지역의 각 수령들은 인근 산성으로 군민을 대피시키는 한편 양곡 및 무기들도 옮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처인성에는 용인 인근 지역으로부터 피신한 1,000여 명의 군민 및 승장인 김윤후를 비롯한 100여명의 승병들이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당시 살리타이의 4군 휘하에 있었던  
력은 무려 500여기의 기마병들이라 하며,  
들은 처인성을 점령하고 수원으로 남진을  
기 위해 처인성 부근의 완장리와 매릉리 일  
에 포진하여 처인성에 대한 포위공격을 하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를 본다면, 군민  
이 대다수였던 이 처인성에서의 전투는 어  
게 이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기된다. 처인성이 도대체 어느정도의 규모  
성이었기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

(살리타이 군의 주둔 지역, 對蒙抗爭史 109페이지)

#### ① 처인성의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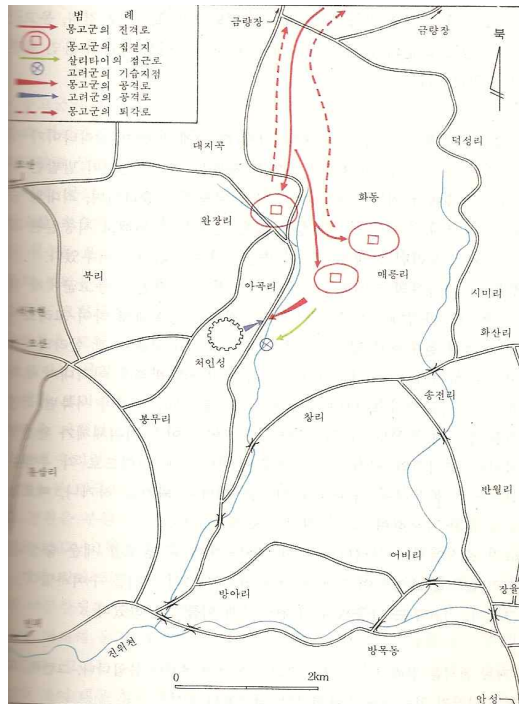
처인성은 여지도서(輿地圖書)라는 문서에 따르면 용인 안에서의 남북으로 요충이 되는 지점이  
자 수원-오산-안성으로 통하는 동서로 연결되는 길과 교차되는 교통로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  
다고 전해진다.

처인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1860년대 ‘대동지지’라는 자료에 따르면 성의 둘레는 3리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다음의 네 자료는 처인성에 대한 모습에 다음과 같이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  
다.

-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성벽의 높이 2.7m-3.6m의 토루로 432m의 둘레라 묘사
- 전국유적목록: 길이 800m의 토성
- 문화유적총람: 성내면적이 3000평으로 둘레 400m, 높이 3-5m의 토성
- 경기도백제문화유적: 350.69m의 둘레의 사다리꼴 형태의 토성으로 약 4-6m 높이의 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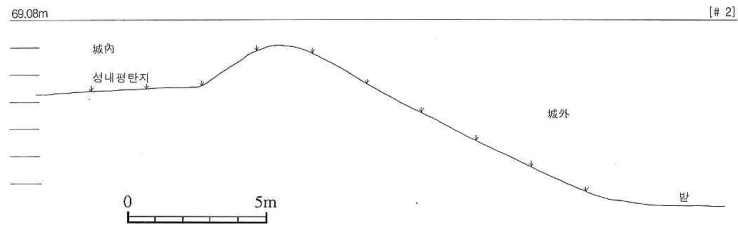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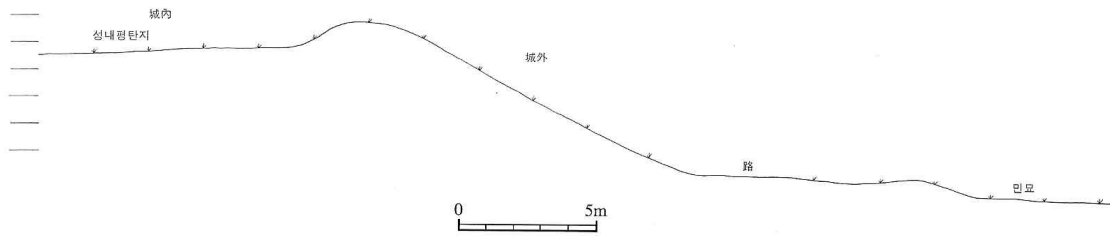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할 때, 처인성은 작은 규모의 토성임은 확실하다는  
것과 살리타이의 군이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자료를 참고하면 더 확실해진다.

(처인성 측면도,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12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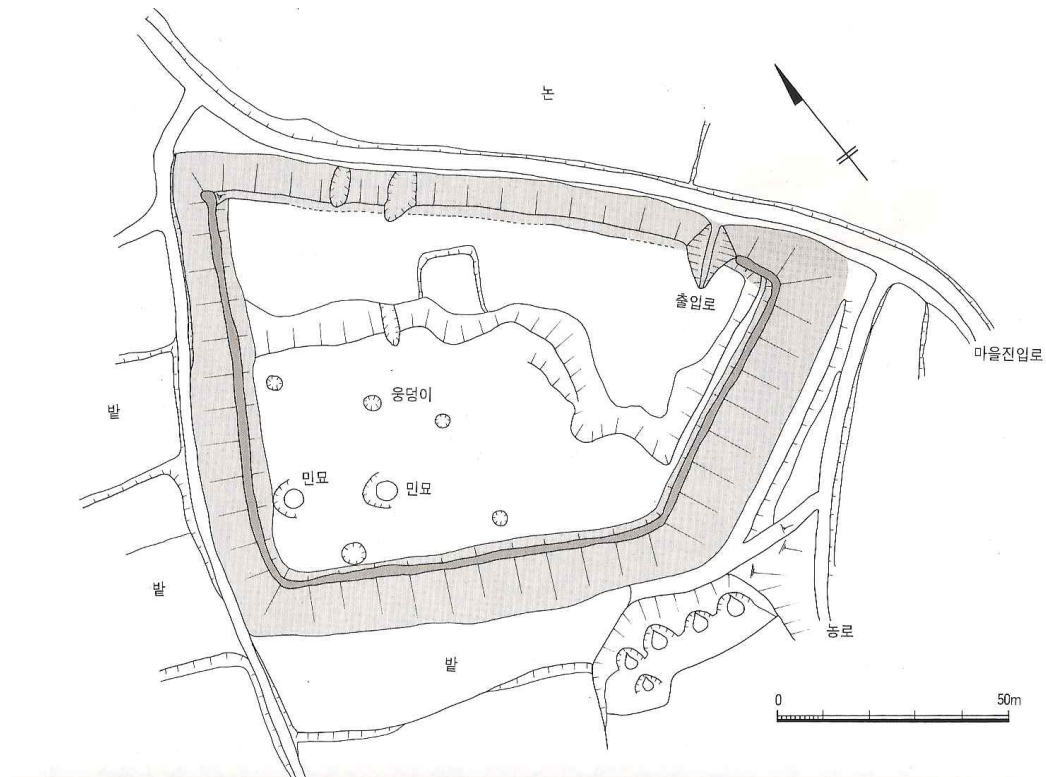
병  
이  
하  
대  
기  
  
들  
땡  
제  
의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처인성은 처인부곡 안에서 군창, 즉 군수물품을 보관하였던 창성의 역할도 했었던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시 군민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성을 방어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당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인성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는 이 두 자료를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처



(처인성의 단면도,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124페이지)

인성은 살리타이가 이끌던 기병들이 뛰어넘지도 못할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을 처인부곡민들은 어떻게 격퇴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답에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고 한다.





## ② 살리타이 저격설 및 유시에 따른 살리타이 사살설

국방부에서 편찬한 對蒙抗爭史에서는 살리타이의 죽음을 김윤후와 승병들에 의한 의도적인 저격과 연관을 시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살리타이는 작은 규모의 토성인 처인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5,6기의 호위병을 데리고 처인성을 둘러보던 차에 김윤후와 승병들의 기습적인 화살세례에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작은 규모의 처인성에서 원을 격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설명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조정에서 무명의 승장 김윤후에게 ‘상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으나 당시 김윤후는 자신은 활을 쏘는 바가 없어서 관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결국 처인부곡민이 쏜 화살에 살리타이가 전란중에 죽은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과 상통하기는 하나 당시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는 점에서 역시 뭔가가 부족한 설명이다.

## ③ 처인성 전투의 의의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처인성 전투의 승리는 김윤후라는 단 하나의 인물에 의한 승리가 아니였다는 것이다. 특히 김윤후가 조정에서 내린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나누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후에 고려 원종(1260년)에 ‘처인현령’이라는 명칭이 나옴에 따라 처인부곡이 승전에 따라 현령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크게 뒷받침 해준다.

또한 이 전투로 인해 향, 소, 부곡민이라고 일반백성과 달리 차별받던 처인부곡민들이 전공에 따라 신분이 상승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려시대의 신분제에 크게 동요를 가져오는 큰 사건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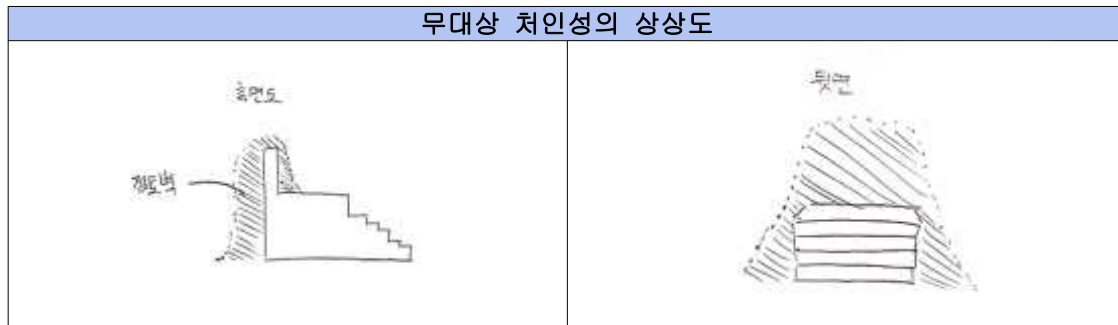
### ▶ 역사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처인성

이처럼 처인성 전투는 살리타이가 이끄는 당대 최고 정예부대인 원을 무찔렀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신분제’의 동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뮤지컬 처인성은 사람들이 간과할 만한 사실인 신분제의 동요와 부곡민들의 협동에 따라 원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보다 우리의 잊혀졌던 역사를 공연으로써 올바르게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 ① 무대 위의 처인성 그리고 복장

처인성은 앞에서의 역사적 사실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곡식과 군수물자를 보관했었던 토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토성이 높이가 불과 4~6M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할 계획이다.



(처인성의 측면 및 뒷면 도식)

처인성은 다음과 같이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계단이 있어서 배우들이 전투씬에 쉽게 올라가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얼마 높지 않았었던 점을 감안하여 높이는 3~4m 정도의 높이로 조정을 할 것이며 벽은 점토를 붙여서 질감을 살릴 계획이다. 또한 장면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할 것이다.

한편 배우들의 복장은 역사적인 사료에 따라서 다음의 양식을 개량을 할 것이다.



(對蒙抗爭史, 원나라 군대의 모습 재현 자료)

참고자료에서와 같이 무대에서의 원나라 군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복장과 마찬가지로 하되 살리타이의 갑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의 병사들은 오른쪽 측면 자료의 [그림 52]와 같은 복장을 재현할 것이고 살리타이는 그 옆의 [그림 51]의 복장을 갖출 것이다.

또한 다음의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대 위의 원나라 병사들의 주된 무기로는 창이 등장할 예정이다.



(<http://blog.naver.com/kshh3249?Redirect=Log&logNo=70051035269>)

처인부곡민들은 인터넷의 고려시대 평민들의 복장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한 차림으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자료와 같이 선명한 색보다는 차별받는 부곡민들의 입장을 복장으로 표현하기 위해 갈색이나 회색계통의 복장을 입을 예정이다.

## ② 역사를 공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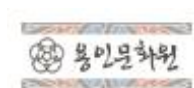
뮤지컬 처인성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무엇보다 역사적인 사실을 공연으로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만큼 픽션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픽션으로 재구성할 사항은 등장인물인 인구, 수지, 홍이, 인성과 무대에서 처인성 전투가 발생할 당시 상황에만 국한해서 표현할 것이다.

따라서 원나라 측의 인물은 역사적으로 고려를 침입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살리타이를 비롯하여 테케, 푸타우, 디쥬, 탕꾸 등도 등장할 계획이지만, 역사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점 그리고 처인부곡민들의 협동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살리타이는 보다 공명정대하고 우수한 무장으로서 표현을 하여 몽골과의 교류의 행사로 열릴 처인성 축제에서 교류 차 온 몽골사람들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연 상에서 김윤후는 처음부터 영웅이라는 캐릭터로 설정하기보다는 평범한 승려에서 점차 주변 인물들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 영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고 마지막 처인성 전투 후에 처인부곡민들의 신분이 오르면서 해피엔딩으로 귀결할 것이다.

## ③ 뮤지컬 처인성 전투의 의의

뮤지컬 처인성은 앞에서도 부단히 언급한 것과 같이 처인성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것을 관광객 및 일반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가 될 시에는 처인성에 주변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對蒙抗爭史,  
고려시대의 용인,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地表調査報告書  
龍仁 麻北里 高麗 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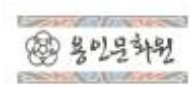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 2010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 <뮤지컬 처인성전투> 기본 시놉시스

- 자주적인 용인시민들의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06학번 박소의  
이란어과 06학번 정소민



## 처인성 전투 기본 시놉시스

(기본배경) 1232년 고려가 원나라에 대한 관계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함에 따라 원나라 태종인 ‘오고타이’는 살리타이를 총사령관으로 명하여 1만여 명으로 구성된 정예 기병을 내주어 고려를 정복할 것을 명한다. 이에 살리타이는 자신의 기병대를 제1, 2, 3, 4 군으로 나누어 각 부대를 자신의 부장인 테케, 푸타우, 디쥬, 탕꾸에게 맡겨 4갈래 길로 나누어 고려를 침공한다. 이것은 8월 하순에 이루어진 일이다.

살리타이의 군세는 실로 무서웠으며 예기는 꺾일 줄 몰랐다. 원나라 별동대의 강한 기세에 눌린 고려는 잇따른 전쟁에서 패한다. 살리타이는 테케에게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우회하여 예성강을 점령, 강화도의 수상 통로를 차단하라고 하였고, 푸타우는 테케를 지원하되 한강 이남 지역의 연락을 차단할 것을 명했으며 디쥬의 3군은 1, 2군이 점령한 곳에 병력을 100여 기씩 남기고 강화도로 진출하고 4군은 다른 경로로써 강화도로 진출할 것을 명하였다.

12월에 이르기까지 살리타이는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오히려 수세에 몰리자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되는 용인으로 그 군세를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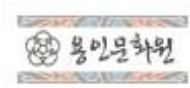
한편, 용인 처인의 백성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밭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토지를 자랑거리로 옆의 지역보다 잘 살고 있음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여느 때와 같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원나라 군대에 패한 군민들이 처인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깨지게 되고, 처인은 곧 아비규환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처인의 절에서 덕망이 높고 심지가 굳은 김윤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단결해야 함을 노래하며 처인부곡의 주민들을 격려한다. 그리고 몽고군에 대항하기 위해 군창이자, 마을의 식량을 거기에 옮겨 장기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에게 알려준다.

처인 부곡민들은 이러한 김윤후의 기개와 언변에 모두들 한껏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살리타이가 이끌고 온 주력 기마부대의 위용, 그들의 함성과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겁을 먹는다. 이에 살리타이는 처인성의 부곡민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내려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위협을 하고 부곡민들은 한층 더 그 기세에 눌리게 된다.

그날 저녁, 김윤후는 국가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쪽과 항복해야 한다는 쪽이 갈등함에 따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김윤후는 이에 호통을 치며 그들을 말리고 힘을 모으면 아무리 원나라의 군대라도 이길 수 있음을 자신있게 역설하며 부곡에 있는 노비문서 및 신분관련 서류들을 불태우며 원의 군대와 항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상하가 없이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노래하고 거기에 감동한 민중은 함성과 함께 결사 항전을 다짐한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살리타이는 별동대를 이끌고 처인성을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한껏 자신감으로 고무된 처인부곡 주민들의 저항은 거세었다. 살리타이와 별동대는 이에 크게 당황하게 되고 그 혼전을 틈타 김윤후는 십수명의 궁수와 함께 살리타이를 저격하여 사살하고 원나라 군대



를 크게 격파한다.

조정은 이에 김윤후에 상장군을 내리고자 하지만, 김윤후는 이 모든 것이 처인성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써 이루어낸 것이라 사양을 한다. 이에 크게 감복한 고려 고종은 처인부곡을 크게 치하하며 후세에 이르러서까지 큰 귀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본받아야한다고 소리 높여 칭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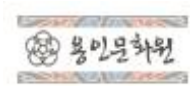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 2010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 <뮤지컬 처인성전투> 기획서

- 자주적인 용인시민들의 이야기

등장인물 설정 및 공연 시나리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06학번 박소의  
이란어과 06학번 정소민



## 등장인물설명

### 원나라측

원나라 왕 태종 ‘오고타이’ : 결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인물, 호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전쟁에서 고려에 대해 승리한적이 있는 살리타이를 군사령관으로 재임명함으로써 지배력강화를 노린다.

원나라 장군 ‘살리타이’ : 원나라와 태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 엄정하고 남성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 강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보여줘서 원나라측에서는 훌륭한 명장으로 나타난다. 끝까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처인성 전투에서 전사한다.

원나라 장수 테케

원나라 장수 푸타우

원나라 장수 디쥬

원나라 장수 탕꾸

- 각 소대의 장군으로 군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각 4소대는 의상색으로 불, 물, 대지, 바람을 상징하며 그 상징에 맞는 안무를 선보인다. 군무파트에선 모두 처인성 부곡민들이 결의하기 전 원나라 군대의 용맹함과 단결력, 강력한 기세를 보여준다.

테케의 소대 : 불을 상징한다. 붉은 색의 옷을 입은 군사들. 불로써 표현되는 격렬함, 불의 빠른 움직임과 역동적인 모습, 군무의 초반에 등장해 관중을 압도하고 흥분시킨다.

푸타우의 소대 : 물을 상징한다. 푸른 색의 옷을 입은 군사들. 유연함이 돋보이는 부대. 물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시간차를 둔 움직임과 안무로 물의 잔상을 나타내고, 불을 상징한 테케 소대의 안무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성에 큰 초점을 둔다.

디쥬의 소대 : 바람을 상징한다. 백색 옷을 입은 군사들. 다시 원나라에서 불어온 듯한 맹렬한 기세의 군무를 보여준다. 거센 바람의 이미지,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탕꾸의 소대 : 대지를 상징한다. 황색 옷을 입은 군사들. 원나라 군대의 군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듯한 느낌, 그들의 호전적인 기세를 절도있는 동작으로 표현하고 균형이 잡혀있는 안무를 보여줘 승리를 예감하는 원나라 군대의 자신감을 표현한다.

### 고려측

고려 왕 ‘고종’ : 극의 마지막에 잠깐 등장. 처음엔 ‘김윤후’에게만 상장군이라는 지위를 내리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처인성 전투의 의의가 가장 크게 담겨있는 ‘신분상승’이라는 부분에서 처인성을 현으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윤후를 이야기를 듣고 사고전환을 하게 된다.



승려 ‘김윤후’ : 무명의 승장이었으나 처인성 전투에서 부곡민들을 선동하여 단결시키고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 처인성 마을에서 신임을 받던 승려로 언제나 마을에 관심이 많고 부곡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마을의 일에 관심이 많고 고민과 번뇌가 많았으나 소심하고 단결력이 없는 성격이 오점. 하지만 부곡민들의 도움으로 점차 훌륭한 마을의 대변인으로 성장하는 캐릭터. 마지막에 고종의 치하를 부곡민들의 공으로 돌려 마을의 신분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마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덕망높은 인물이 된다.

부곡민 인성 : 어린 시절부터 김윤후와 함께 성장한 죽마고우.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투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이 넘쳐 김윤후에게 항거 할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김윤후를 돕는다.

부곡민 수지 : 인성의 처(妻).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인성에게 현실적인 문제점과 부곡의 현실과 한계를 꼼꼼히 지적해 인성과 김윤후로 하여금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투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고려여성으로 설정.

부곡민 인구 : 인성의 동생. 다혈질의 혈기가 넘치는 처인성의 젊은이. 약간 단순하고 무식한 인물로 설정, 극 중에 관객의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스꽝스럽게 언급하여 궁금증을 풀고 관객으로 하여금 재미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감초의 역할. 오버스러운 행동 등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부곡민 홍이 : 겁이 많고 소심한 인구의 친구. 왜소한 몸집과 어리숙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원나라 쳐들어 올때 마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에게 과장된 소문과 불안감,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막상 전투 중일때는 도망쳐서 있다가 승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인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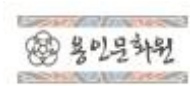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기타 약 15명 내외의 댄서들

## 뮤지컬 처인성 시나리오

원의 고려 1차 침공이후, 원나라는 지속적으로 고려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에 고려 조정은 강화도 천도를 단행하고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원의 잔여 세력을 축출 및 처단을 통해 항전의지를 보이고 이에 원 태조인 오고타이는 격분하게 되는데...

### ▶ 우리만의 승리 - 극 초반, 원나라 왕이 고려의 침략을 결정하는 장면

(지킬앤하이드의 가면1을 개사. 비슷한 분위기로 가되 북소리 첨가와 악기 변경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살린다. 태종과 살리타이, 장군들의 주고받는 대화형식의 가사이며 원나라 군대의 호전적인 느낌, 절대 패배를 모르는 용맹함을 살린다. 또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살리타이의 네 장



수인 테케, 푸타우, 디쥬, 탕꾸는 소대를 이끌고 와서 역동적인 군무를 보여준다.)

태종 : 지금이야!

태종 : 이제 시작됐어, 길은 하나뿐야  
겁을 잃어버린 너희의 무례함  
맛을 보면 정신차리겠지!

밤이 오기까지 내게 대령하라  
다시 한번 너를 친히 믿어보마  
맛을 보면 정신차리겠지!

살리타이 : 또 한번 믿어주신 폐하께  
다시 한번 승리를  
모두 일어나라  
장군 :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난다)  
살리타이 & 장군 : 또 한번 믿어주신 폐하께  
다시 한번 승리를  
우리의 승리

태종 : 내게 승리란 우리의 이름일뿐  
너의 승리란 꿈속의 허상일뿐  
후회하게될 뼈저리게 뉘우칠  
너희의 큰 실수

태종 & 살리타이 :  
일어나라 살리타이 고개들어 나를보라  
내게 다시 한번 승릴 다오  
황제폐하 이몸에겐 충성충직 정직 승리  
빠짐없이 이나라를 위한

살리타이 : 장군들아 고개를 들라 나의 칼 끝을 보아라  
우리 장군들은 이제하나 되어 싸운다

장군 :  
살리타이 살리타이 기세등등 우리모두  
하나되어 승리한다 싸운다  
살리타이 살리타이 기세등등 우리모두  
하나되어 승리한다 싸운다



어디서 감히, 불복종을  
무얼 믿고 당당한가  
하지만 결국 패배 후회해도 지난일  
우린 승리한다! 너훔 물리친다!  
겁을 잃어버린! 너훔 응징한다!  
출발해! 가! 모두 불태워라

내게 승리란 우리의 이름일뿐  
너의 승리란 꿈속의 허상일뿐  
후회하게될 뉘우칠 실수

또한번 믿어주신 패하께 하!  
다시한번 승리를  
모두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또한번 믿어주신 패하께  
다시한번 승리를 (다시 승리를)

우린 승리한다! 너훔 물리친다!  
겁을 잃어버린! 너훔 응징한다!  
일어나라 모두 승리하라

우린 승리한다! 너훔 물리친다!  
겁을 잃어버린! 너훔 응징한다!  
기다려라 절대 용서 없는 (모두 불태워라)  
절대 용서 없는 (너훔 응징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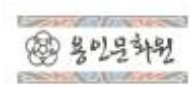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출발해 - 우린 승리한다.

군무가 등장  
이렇게 기세가 오른 원의 군사들은 고려를 침략한다. 하지만, 고려의 항전의지로 인해 살리타이의 군대는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장기전이 됨에 따라 휘하의 장수들과 함께 강화도를 침공하기 위한 묘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살리타이 : (근심어린 표정으로) 고향을 떠나 고려로 진군한 것이 8월이었는데, 어느덧 12월에 접어들게 되었구나. 전쟁이 장기전이 된다면 필시 우리에게는 이로운 것이 없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테케 : (황급히 살리타이 곁으로 다가오면서) 장군! 어느덧 군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타우 : (테케에 이어서) 장군! 예상외로 고려의 군사들의 저항이 거세어 군대의 사기가 꺾일



것이 두렵습니다.

디쥬 : (푸타우에 이어서) 장군! 고려에서 우리의 항복권고를 거절하였습니다.

탕꾸 : (디쥬에 이어서) 장군! 전쟁이 길어질 것에 대해서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군사들 모두 다 같이 : 이 위기를 타개할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리타이 :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래,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이렇게 주저앉는다면 황제 폐하를 뵈는 날이 없다.

여봐라!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나?

테케 : (절도있는 동작과 함께) 무엇보다도 식량과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장군!

살리타이 :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 두 가지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여기서 약탈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푸타우 :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용인입니다. 특히 처인부곡에 위치하고 있는 처인성에 곡식과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탕꾸 : 게다가 용인은 수원-군포-부평-김포를 잇는 교통의 요지라 하옵니다. 여기를 점령한다면 현재 고려의 수도인 강화도를 침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살리타이 :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오오...좋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로구나! 여기서 이렇게 아무 수확도 없이 주저앉을 순 없지. 군사들이여! 나를 따라 용인 점령을 시작으로 고려의 수도인 강화도로 진군하라!!!

모두 함께 : (함성을 지른다) 와아~!!!!

자신감을 회복한 살리타이의 군대는 이렇게 함성소리와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무대를 퇴장한다.

-----  
모두가 퇴장한 뒤에 장소는 처인부곡으로 이동한다. 처인부곡민들은 어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은 노래와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도 살리타이의 군대로부터 패배한 군민들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

▶ 감사하는 하루 - 작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해하고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는 처인부곡민들의 행복한 삶을 조명하는 씬



(지지의 Thank Heaven for Littel Girl을 개사, 시골적이고 흥겨운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분위기의 곡. 인성과 수지가 함께 부르는 노동요의 느낌으로 연출. 짧은 노래를 연달아 두곡 정도, 처인성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믿고 감사해하며 살고 있는 전쟁 전의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를 보여준다.)

오늘도 좋은하루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맛있는 보리밥과 사랑하는 남편과 하루하루  
오늘도 좋은하루 비록 알아주지 이는 없지만  
맑은 햇살과 불평 없는 좋은 이웃들  
하루에 감사해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마을의 하루  
한낮의 휴식 시원한 바람과

행복을 사랑을 감사를  
우리 마을에

노래가 끝나자 김윤후가 등장한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자라온 처인부곡의 정든 친구들인 인성, 수지와 차례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다.

김윤후 : (헛기침을 하며) 인성아, 형님이 왔다.

인성 : (힐끗 보더니 귀찮은 표정으로) 요즘 절에서 너무 자주 오는 것 아냐? 어떻게 승려라는 작자가 이리도 자주 싸돌아다니나, 그래?

김윤후 : (멋쩍게 웃으며) 그게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죽마고우에게 할 소린가 이 사람아? 그나저나 요즘에 마을에는 별일은 없는가?

인성 : (한가롭게 뒷짐 지면서) 별 일이랄게 있겠는가, 이 사람아. 추수는 애초에 끝났고 겨울이 왔는데, 봄이 올 때까지 추위를 잘 날 일만 남았네.

김윤후 : 안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인성: 건강하다 뿐이겠는가? 너무 건강해서 그 기가 나를 억누를 정도라네. 안 그래도 어제 담배를 피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

김윤후 : (박장대소하며) 하하하하, 두 사람은 여전히구만 그래.

이때, 수지가 김윤후와 인성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걸어온다.

수지 : 엄마나? 아주버니 오셨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김윤후 : (동시에) 인성이 이 놈 담배 좀 그만 태우라 하고 있었지





인성 : (동시에) 자네 기세가 기세가 여전히 등등하다 하고 있었어

수지 : 얼씨구 ? 사내들이 무슨 아녀자 뒷 얘기를 그리 하시오? 호호호호호

(그때 홍이와 인구 어깨동무 한 채로 무대에 나타남.)

인구 : (과장된 몸짓과 말투로)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홍이는 인순이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아랫마을 인순이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홍이 : (심히 위축된 모습으로)아.. 아니야!! 아니라구!! 조 조 조조 조조조 조용히해!

인구 :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귀끝까지 씨빨게진게 크크크크크 으하하하하하 어서 가서 침바르지 않으면 곧 뺏길껄?

홍이 : 누... 누구한테?

인구 : 누구긴!! 바로 이 들판하고 멋진 인구님께 뺏기는거지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홍이 : 노노노노노놀리지마 자자자자자자자장난치지마

인구 : 장난 아닌데? 그렇게 귀여운 인순이를 나만 봐들 성 싶으냐? 으하하하하

홍이 : 너너너너너 너 이 자식!!!! 가가가가가만두지 않을꺼야!!!

홍이 인구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힘으론 역부족. 우스꽝스럽게 싸우고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인다. 몸개그를 친다. 이때 김윤후가 보다못해 그 둘을 중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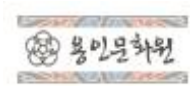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김윤후 : (근엄하게) 이놈들!!! 또 싸움질이냐! 너희는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느냐

홍이 : 이이이이이이이인구 이자식이 이이이 !!

인구 : 내가 뭘? 내가 뭘?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김윤후 : 인구 네 놈도 그만하거라, 이웃끼리 우애 좋게 지내야지, 홍이가 착하다고 우습게 여기느냐, 딱 봐도 네가 잘못된거 같으니 먼저 사과하거라.

인구 : 아 스님은 왜 맨날 홍이 편만 드세요? ... 아나.. 아나...



김윤후 : 어허~ 어서

인구 : 아주~ 미안하게 뒀수다. 아주 아주 아주 미안하게 뒀수다.

홍이 : 쳇

김윤후 : 에휴 둘이 언제 철들지 모르겠네

수지 :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거지요 ~

인성 : 애들이라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 허허

인성의 대사와 함께 감사하는 하루의 간주가 시작된다.

마을 아낙들의 등장과 함께 노래가 멈추며 극적인 씬의 변화를 연출한다.

(그 때 빨래를 하러 갔던 동네 아낙들이 소란스럽게 무대로 등장, 인근 마을로부터 온 피난민들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두서 없이 앞다뒀 전한다.)

동네 아낙들 : 큰일났어! 전쟁이야 전쟁! 큰일났어!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 큰일났어!!

다같이 : 뭐라고? 전쟁?

동네 아낙들 : 전쟁이에요!!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어

다같이 : 전쟁?

인구 : 오라지 다 오라지 이 인구님이 상대해줄테니

홍이 : 난 도망갈꺼야. 마을 사람들이랑 도망갈꺼야

**▶ 도망갈래 - 평화롭던 처인성 마을에 전쟁의 소식이 날라들자 혼란에 빠지는 마을의 모습이 담긴 씬**

(뮤지컬 Rent의 La vie Boheme A 부분을 개사, 노래 자체가 다수인물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 혼란스러운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 하지만 아주 심각하고 무겁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선동하는 홍이와 그런 두려움을 패기로 잠재우려는 단순한 인구의 대결구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짐을 꾸려 피난을 떠나려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대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불규칙적인 대사와 불규칙적인 행동들이 혼란에 빠진 마을을 보여준다)

홍이

느낌이 이상해



인구  
무슨 헛소리야

마을 사람들  
땅이 울려

흥이  
이것봐, 느낌이 이상해  
엄청난 숫자의 말발굽 소리  
넌 정말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거야?  
엄청난 숫자의 말들이 달려오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도망갈래  
이건 분명 전쟁이야  
우린 ... 죽을꺼야  
도망갈래

흥이  
전쟁이 시작된걸 알리기 위해  
마을사람들을 모두 모았어  
내 말좀 들어봐  
모두 날 미쳤다고 하지만  
엄청난 일이 우릴 향해 다가오고 있어  
둥둥 대지가 울리는 소리를 들어봐  
지금은 날 믿을 때야, 두려운 표정들  
허리끈을 동여매고, 머리를 단장하고  
잘들어.... 도망가자!!!!

ALL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인구

우리마을 흥이 공식바보  
겉뭇고 소심한 울보가 나섰네  
애기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너



혼자만 무서우면 됐지  
다른사람들까지 무섭게 도망가게 만들어

말발굽소리 들리잖아 둥둥둥 둠 쳐들어와  
뺨혀죽고 타서죽고 생각만해도 무서워  
그들은 나를 노릴꺼야  
오줌이마려워 어떡해

까짓거 오라지 쳐들어 오라지  
이 인구님이 혼내주면되지  
벼락같은 목소리와  
황소만한 등치로  
들쳐매고 업어치고 물리치지

바보야 그정도가 아니야  
우린 모두 죽을꺼야

ALL  
도망가자  
도망가자

동네여인 1  
으흠  
야, 이 바보야 여기 눈물땀어  
동네사람  
누구말을 믿어야만 하는건지 모르겠네  
인구나 흥이나 바보같긴 마찬가지  
저놈말대로 이길수 있는걸까  
저놈말대로 도망가야하는걸까

동네사람2  
들다 바보야!

동네여인  
그래도 도망가는게 낫지 않아?

동네사람  
인구혼자 싸울 순 없으니  
도망가는게 낫지

ALL



도망가자! 도망 도망!

동네여인들

치마를 여미고 아이를 업고 낫쇠그릇 챙겨야 하나  
피난을 가면 어디서 자나 어디서 먹나 뭘해야 하나  
동네남자들

바지를 추키고 지계를 지고 가마니를 매고  
피난을 가면 어디서 자나 어디서 먹나 뭘해야 하나

피난을 가면 어디서 자나 어디서 먹나 뭘해야 하나  
피난을 가면 어디서 자나 어디서 먹나 뭘해야 하나  
피난을 가면 어디서 자나 어디서 먹나 뭘해야 하나

어떡해

어떡해

뭘해야하나

짐챙겨!

도망가자!

뛰어!

벌써 다 왔나?

흥이는 알수 있어

흥아 그들이 벌써 다 왔니?

어떡해 시간이 부족해!!!

동네 여인 , 동네 사람

우리의 정든 마을 처인성을

이렇게 떠나야 하나, 땅과 마을!

누군가 오고 있어!

도망가자!

동네사람

다챙겼어?

동네여인

옷이나 입어요1!!



사람들  
온다!

ALL  
도망이다  
우리의 정든 집을 버리고

인성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ALL  
도망가자

인성  
휴 우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겉잡고 소심한 흥이 이놈이 결국 일을 내는군  
이게 무슨 난리야 대체!  
평화롭고 따스하던 우리 마을  
갑자기 난리가 났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  
우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수지  
아뇨, 지금은 위험해! 상황을 지켜봐야해요  
사람들이 겁내는 것도 당연해요

흥이  
우리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수지아줌마도 위험하대  
우리는 곧 죽을꺼야 죽고말꺼야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둥둥둥둥

인구  
야 이 바보같은 자식아 조용히 하라고  
내가 다 이길 수 있단말이야  
엎어치고 들쳐매고 넘겨버릴꺼야

수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어찌면 좋지?  
모두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 집은, 이 곳은 누가 지키나?  
이 곳을, 누가 지키나?  
우리의 마을을?



암전

인성 :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러 가는 곳이 좋겠소.

수지 : 지금 그쪽이 몇 명인줄 알고 덤벼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인성 : 그럼 도대체 어찌란말이오. 원의 군대는 쳐들어오고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있소?

수지 :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처인성으로 몸을 피하자고 이야기해요

인성 : 내 말을 듣기나 하겠소?

수지 : 아주버님께 말씀을 드립시다. 덕망 높고 지체있으신 스님이니 분명 마을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김윤후 : (헐레벌떡 인파를 치우고 뛰어와) 자네 저 불길이 보이는가? 어느새 바로 아랫마을까지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 왔네!!!! 어찌해야 좋겠는가!!!!

인성 : 안 그래도 우리가 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좋은 생각이 있으니 들어보게

김윤후 : 그게 무엇인가?

수지 : 우리 마을 근처에 있는 처인성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자구요. 아주버님이 가자고 하시면 모두 다 따라나설거예요!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요. 시간을 조금만 벌여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윤후 : (자신없는 목소리로) ..... 일개 스님인 나를 마을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전투를 이끌어본 적도 없고, 원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가?

인성 : 그래도 자네야 말로 진정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덕을 쌓아온 스님 아닌가? 자네의 진심을 보여준다면 마을 백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넨 따를 것이네. \*관객 참여 부분\* 그렇죠 여러분?

수지 : 맞아요, 맞아요. 아주버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을 벌여봐요. 할수있죠?  
\*관객 참여 부분\* 할 수 있죠? (관객 응원 유도)

응원에 자신감을 얻은 김윤후, 집중조명,

김윤후 : 알겠소! 여러분의 뜻이 정 그리 하다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소. 나를 잘 따라 주시겠소? (\*관객 참여 부분\* 와~~~~~!!!!!!) 우리 모두 처인성으로 갑시다!!!

암전과 함께 퇴장 -----

장소 : 성 안, 무대 구조는 낮은 높이의 2층에서 처인 부곡민들이 땅을 내려다보고 살짝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대 한쪽에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살리타이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때 팀별 화려한 군무를 선보인다.





<군무>가 펼쳐진다.

살리타이 : 처인 부곡민들은 들어라! 나는 원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고려 정복을 위해 여기 까지 달려온 살리타이다. 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식량을 내놓는다면 너희의 목숨만은 살려주 마.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내게 답을 알려와라. 한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면 너희에겐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군대들 : (함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와!!!! 살! 리! 타! 이! 살! 리! 타! 이! (반복하며 퇴장)

살리타이의 군대가 퇴장함과 동시에 처인성 안은 혼란이 가중된다. 이때 이들의 심리를 대변하 는 다음의 노래가 흘러 나온다.

▶ 우리가 할수 있는 일 - 마을이 혼란에 빠졌을 때, 모두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킬 결의를 다짐 하는 인성과 수지의 모습을 격정적으로 보여주는 씬. 현명한 대처방법을 고민하는 장면.

(The Phantom of The Opera를 개사한 곡. 웅장한 사운드와 결의에 찬, 허나 조심스러운 가사와 노래. 혼란스러운 부곡민들과 무너져갈 처인성의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성에 비해 현실적인 문제점이 조목조목 짚어내는 수지의 성격을 보여준다. 의견은 갈리지만 서로 의견을 맞추어 좋은 방법을 모색한다)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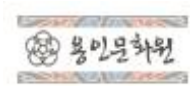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두려운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  
말발굽 소리, 내 심장도 떨려와  
도망만이 살길일까?  
아니 그럴리 없어, 우리가 살곳은 이곳 처인성  
바로 이곳

[인성]

두려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  
우리의 힘이라면 충분히 이긴다고  
모두 힘을 합치면  
쳐부수고도 남지  
대체왜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해보지도 않고

[수지]

하지만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무턱대고 덤비면  
모두 잃어요



[함께]

뭔가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수있는  
할수있는

[수지]

우린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인성]

고맙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수 있는 일

해보자

노래가 끝날 때쯤 무대 뒤에서 노비문서를 한아름 들고 김윤후가 등장한다.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낮게 웅성댄다.

김윤후 :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게 무언지 아시오?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종이들이 모두 무엇인지 아시오?

동네사람 : 글도 모르는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김윤후 : 이것은 우리 마을사람들을 평생 대대손손 천민으로 묶어온 노비문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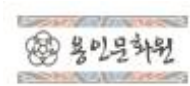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인구 : 그래서 뭐요 ?

김윤후 : 내 지금 이것을 없애버리겠단 소리네.

사람들 : (동시다발적으로)어이구! 말도 안돼. 그게 가능합니까? 스님이 미친거 아니요?

김윤후 : 지금 이 순간 함께 싸우는 우리 사이에는 신분의 귀천도 높고 낮음도 없소. 그저 삶의 터전을 지키고, 또 이 나라 고려를 지킬 마지막 남은 희망이오.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만이 이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 나는 그리하여 우리를 둘로 셋으로 나누는 이 노비문서를 지금 불태우겠소.

동네사람 : 그 노비문서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윤후 : 이 전투에서 승리만 한다면야 조정에서도 나라를 지킨 우리를 벌할 순 없을꺼요. 벌은 커녕 상을 내리실꺼요. 만약 상을 내리지 않더라도 나 김윤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공이 잊혀지지 않게 하겠소.

김윤후가 노비문서 하나를 태우기 시작한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김윤후에게 노비문서 하나씩을 받아 각자 태운다. (종이를 한 장씩 태워 하늘에 던지는 제사의 모습같은)

김윤후 : 우리를 나누었던 굴레는 이제 아무것도 없소. 우린 이제 하나가 되었소. 이제 힘을 합쳐 이 마을을 지키는 일만 남았소. 하늘은 우리 편일 것이요. 싸웁시다!!!

사람들 : 와 !!!!! 싸우자!!!!!!!!!! 처인부곡 만세!만세! 만세!

암전 후

다음날 동이 틀 무렵 살리타이의 등장

살리타이 : 그래, 의견은 결정 하였나?

김윤후 : 우리 처인 부곡민들은 비굴하게 식량을 내주고 목숨을 부지할 바에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더 이상 긴말이 필요없다. 우리에게 행복을 바라지 마라

살리타이 : 이 건방진 놈들! 아직 매운 맛을 보지 못했구나! 본때를 보여주지

김윤후 : 하! 누가 본때를 볼지는 대봐야 아는 것이지!

살리타이, 김윤후 : (동시에) 처라!!!!!!

살리타이군과 처인부곡민들의 전투가 시작. 전투의 움직임을 군무로 표현. 중간에 큰 소리로 상대의 기를 누르는 부분을 군무사이에 삽입.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처인부곡민들의 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처인 부곡민들이 힘에 부치는 모습이 보인다.

김윤후 : 으으으으 이렇게는 역부족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살리타이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던져주세요!!!!

관객에게 입장시 나눠주었던 화살을 날리게 함. 처인부곡민들을 돕는 관객들의 화살 중 하나에 살리타이가 맞고 목숨을 잃는다.

(살리타이를 죽인 사람이 김윤후가 아니라 무명의 1인이라는 것의 재해석)

사람들 : 와!!! 우리가 이겼다! 살리타이가 죽었다!!!!!!



인구 : 내 이럴줄 알았지. 역시 인구님이 있으면 지는 법이 없다니까? 으하하 으하하 으하하

홍이 : 우우우우웃기지마 너너너너너가 죽인거 아니잖아 모모모모두 함께한거양

인구 : 어쨌든!! 으하하하 이기면 좋은거지

수지 : (인성을 부둥켜 안으며)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다친텐 없어요?

인성 : 난 괜찮소!! 부인은 괜찮은거요?

수지 : 나도 괜찮아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김윤후 : 우리 모두의 힘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께 감사합니다.

이때 갑자기 무대밖에서 “주상전하 납시오!”라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고종이 등장. 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고종앞에 처인 부곡민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

왕 : 그대들은 이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으로서 처인성을 지켰을뿐만이 아니라 고려를 살렸다. 그대들을 이끈 장군이 누구인가. 어떤 훌륭한 장군이기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원나라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는가. 내 그 명장을 만나보고 싶네.

처인 부곡민들이 조용한 와중에 인성과 수지가 김윤후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머지 부곡민들도 속삭이며 김윤후의 이름을 이야기 한다.

인성 : 자네 일어서지 않고 무얼하는가?

수지 : 아주버님 어서 나가서 상을 받으셔야죠

김윤후 :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나는 장군도 아니고, 공을 세우지도 않았네

인성 : 아니, 무슨 소릴 하는거야, 그럼 여기서 자네 말고 누가 전하 앞에 나설 수가 있겠는가?

수지 : 그래요 우선 일어서요. 전하가 기다리고 계세요.

김윤후 : (마지못해 일어난다) 전하, 승리 김윤후라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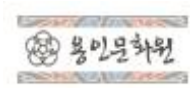
왕 : 오 그대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장이로구만. 내 자네를 훌륭히 여겨 친히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내리겠노라.

김윤후 : 외람된 말씀이오나, 전하. 저는 그 벼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 :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김윤후 : 전하, 저는 장군도 아닐뿐더러 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적을 격퇴한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처인 부곡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로 이 벼슬을 저 혼자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 : (무릎을 탁! 치며) 음..... 오호라! 그렇구만.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그럼 내가 자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상을 내리노라. 앞으로 처인 부곡을 부곡이 아닌 주현으로 승격하도록 명하겠노라!



사람들 : 와!!! 와!!! 주상전하 만세! 만세! 만세!

▶ 새로운 세상 - 전투 후 모두가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마무리 장면.

(처인성 전투의 승리 후, 고려 고종은 김윤후에게 승장군의 칭호를 내리려 하지만 김윤후는 그것을 거절하고 처인부곡민의 공으로 그것을 돌린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종은 처인부곡을 승격시키고, 처인 부곡민들의 신분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모두의 힘으로 원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와 신분상승을 동시에 얻은 부곡민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자축하며 우리의 단결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준 것을 노래한다.)

김윤후  
이제 혼란은  
모두 끝났어  
하늘에 감사해  
평온을 찾은걸

김윤후, 인성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죽음과 패배와  
아픔만이 남아있겠지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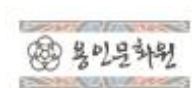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여서  
당신들이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WOMEN (여기부터 여자파트 남자파트 돌림노래처럼 함께가는 부분)

새로운 세상을  
찾을 수 있었어  
모두의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MEN

찾을 수 있었어  
우리가 해냈어  
사랑과 희망과  
우리가 해냈어



WOMEN

바로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우리가

사랑이 희망이.....

MEN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찾았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났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끝- 노래가 끝나면서 동시에 암전. 마지막 커튼콜은 배우의 재량에 맞춰서.